

교회 목표

신앙관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역오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번 주에 2001년도 제3차 청지기 훈련 실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30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구분	9월 5일(수)	9월 6일(목)	9월 7일(금)
강사	김정관 목사	김성환 목사	김정관 목사
본문	롬 12:2	마 13:17-18	고후 5:17
제목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 땅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예수그리스도는 새 삶을 창조하신다.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파부의 기름 (왕하 4:1~7)

엘리아의 기억에 남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시로마에 사는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 없이 외아들과 함께 그리 지역 살아가야 했고, 가뭄까지 겹쳐 더욱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죽으려는 결심까지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비가 내릴 때까지 그녀를 먹이셨으며(왕상 17:14), 엘리아가지도 그 가루를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녀는 그분의 끊임없는 은혜를 눈으로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또 다른 여인을 깊은 절망에서 건지셨다. 그녀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잃었고,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남편이 남겨준 것은 두 아이와 양육의 책임, 그리고 갈아야 할 밭이 전부였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채두에게 두 아이를 종으로 빼앗겼자 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왕하 4:1). 그녀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죄의 형벌을 홀로 다 짚어야 했다. ‘남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서 남자를 사모하게 되리라’ 말한처럼 죽은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 그녀의 가슴에 일몰처럼 밀려들었고, 얼굴에 땅이 흘러나 식물을 먹으리라는 남자를 향한 항망마저 그녀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었다(창 3:19). 그러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부로짓됨 오직 믿음으로 부를 찾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갈лежа는 유일한 길 길이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그녀의 부로짓됨에 엘리사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엘리사는 도움을 구하러 온 여인에게 물었다. 가진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만일 그녀가 부장직이었다면, 엘리사의 질문에 대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으면 당신에게 부로짓겠느냐?’라고 반문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부장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았고, 자신에게 한 병의 기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즉시로 떠올랐다. 그 한 병의 기름은 그녀에게 축복의 시작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지금까지는 돈을 꾸러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기름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집집마다 그릇을 빌려다 다녔고, 한 병에서 나온 기름으로 그 많은 그릇들을 가득 채우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였다. 믿음은 자신이 가진 한 병의 기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병의 기름을 통하여 모든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라.

엘리아는 그녀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밭을 갈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말해 주었다. 마침내 그녀는 삶의 깊은 절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행한 그녀의 순종은 자신과 두 아들을 고통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제는 삶의 여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그녀에게는 분명히 그러하다. 가진 한 기름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더 기뻐했으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이다. 초라한 집에서 문이 닫힌 채 떨어진 이 놀라운 사건은 장차 천국에서 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이요,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 그는 머리 돌 것조차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생명이 있음을 아셨고, 그 생명이기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전부 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드러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건지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불신은 가진 것만을 쳐다보고 어리석게도 원망하거나 움켜쥐는 것이다.

2001년도 제5차 성찬식

(1부에서 5부까지)

‘주의 만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시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시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이번 주일 예배에는 1부에서 5부까지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시고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요 영광스러운 ‘주의 만찬’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참여해야 한다.

‘성찬’에 대한 소고

‘예수께서는 다락방에서 행한 만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는 또 열매에서 난 것을 따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마 26:29, 막 14:25). 그러므로 성찬은 최후의 잔치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나타내며, 이 대속의 피를 통하여 잔치가 준비되고 손님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기 때문이다’(The Church, E. P. Clowney).

성찬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그저 슬퍼하거나 애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 아니다. 성찬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사하며, 장차 영원한 천사로 자신을 데리고 가실 영원한 신랑과의 참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제림과 천국으로의 입성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영적인 연합의 시간이다. 그러한 이들은 단지 잔치가 끝나면 돌아가는 하객들과 같은 뿐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를 위한 제2안(3)

다음 주일(9월), 2부 · 3부 예배

49주년을 맞이하여 실시되는 가족연합예배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가족연합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도록 충현의 성도들은 마음과 같이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우선, 주일 3부 예배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리도록 직분자들은 가능한 한 다음 성도들을 위해서 2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란다. 또한 지난 주 주 동안 ‘주간충현’을 통해서 제시한 연합예배의 목적과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먼저 숙지시켜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자녀들이 처음 대하는 예배라서 걱정되든 소란하거나 어수선택지기 쉬우므로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와 함께 이 시간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서 충현의 성도 모두가 주일성수의 귀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몸소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9월 기도원 담당

김교섭 목사 (16교구 지도)

Heavenly Home

(Hebrews 11:13-16)

“But as it is, they desire a better country, that is a heavenly one.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s prepared a city for them.”

All the Old Testament believers died in faith, “without receiving the promises, but having seen them and having welcomed them from a distance, and having confess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exiles on the earth” (v. 13). The believers of old didn’t get the promises, all that was included in the actual coming of the Messiah, but they believed in them and looked forward to their arrival. They admitted and witnessed on their own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exiles on this earth. Think about yourself. If you think you are a Korean who lives in South Korea and, therefore, don’t qualify as an alien/foreigner to this land, think again. Are you a believer? All believers are strangers to this earth, no matter where they live. Often times people try to make this earth their own country. Abel, Enoch, Noah, and Abraham saw from a distance their homeland. They died in faith longing for their own country which was in heaven. Their final home was not on this earth, it was God’s country. Too many 21st century Christians think and live as if this earth is their country. They aren’t seeking their heavenly home.

Those who know they are strangers and exiles here on this earth “make it clear that they are seeking a country of their own” (v. 14). If Abel, Enoch, Noah, Abraham, Sarah, Isaac, Jacob and Moses “had been thinking of that country from which they went out, they would have had opportunity to return. But as it is, they desired a better country, that is, a heavenly one.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s prepared a city for them” (vv. 14-16). Amen! These believers practiced their faith. Their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were all different, but one thing they had

in common was that they all sought a better country. They yearned for that which is in heaven. They desired a relationship with God the Creator because of His promises to prepare their heavenly home.

My dear friends, God has given us a warning not to shrink back from thinking of heaven, “But we are not of those who shrink back to destruction, but of those who have faith to the preserving of the soul” (Heb. 10:39). Heaven is the place that God has chosen to preserve our souls. This earth is temporary. Heaven is eternal. “But My righteous one sha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My soul has no pleasure in him” (Heb. 10:38). God takes no pleasure in those who withdrawal from His promises. “For yet in a very little while, He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delay” (Heb. 10:37). We need to start practicing our faith. We need to pursue the kingdom of God in faith.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Heb. 11:1). Faith gives reality and proof of things unseen, treating them as if they were already objects of sight rather than of hope. As Christians we look for what we see right now, for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For by it the men of old gained approval” (Heb. 11:2). By faith they believed in the Word of God,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prepar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which are visible” (Heb. 11:3). Do you understand? There’s a huge difference in living by faith in God’s promises and living by sight for the here and now.

The believers of old witness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exiles on this earth. Do you do that? As

Christians, we are seeking the promised country of eternal salvation which God prepared for us. Clearly that place is not this earth. How much do you shrink back to destruction? Think about it. You were born on this earth and your parents or guardians raised you up on this earth. You have fellowship with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on this earth. Your dreams, education, family, children, and business take place on this earth. Many find happiness in their cultural surroundings on this earth. They seek larger homes, superior educations, bigger opportunities, improved lifestyles, a better country, and more business and property. Are your hopes and dreams tied to this earth? Are you trying to make this earth the best life? Oh, what a sad state. What a shrinking back to destruction! Christians are born again. Their home is heaven. They are new creatures—children of God. Does your heart get excited about this more than it does over the conveniences of this earth? Do you respect this earthly life more than a heavenly life? The old believers didn’t have a worldly dream centered on Solomon’s riches and wealth.

Think about the Apostle Paul and his trials and tribulations. How does your life compare to his? Are you really a believer or are you a hypocrite? Are you really seeking a heavenly home or is your heart set on earthly things? Do you look to the cross for God’s eternal Word? “Therefore, since we have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surrounding us, let us also lay aside every encumbrance and the sin which so easily entangles us,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 12:1&2). Amen!

Jesus asks you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Do you know how to receive the home of heaven? You have to follow Jesus. What manner of life is more important than the cross? Is living for yourself better than denying yourself? Your “self” always wants earthly things until you deny it. If you don’t deny yourself, you will finally deny God. If you deny God, your home is earth. For when you recognize self there is no God and earth becomes your only choice. When you deny yourself, you recognize God and your homeland becomes heaven. Of the thousands and thousands of Israelites who looked to the promised land, only Joshua and Caleb entered. And even they had to journey forty long years through the desert. Everyone else shrunk back to destruction because their home was in this earth.

Today is our church’s birthday. Is Choong Hyun headed toward a earthly home or a heavenly home? Where is your home my dear friends? If your home is heaven,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All the believers of old believed by faith in God and saw His promises without receiving them. Do you have hope for the heavenly kingdom and not earthly things? God help us. Jesus help us. Holy Spirit help us. Please open our spiritual eyes to see the kingdom of heaven and to see the cross which displays Your great love for us. Let us confess that we are sinners and through the cleansing of Your blood become your children. Let us live as strangers and exiles of this earth, anxiously awaiting our heavenly home. Amen. ■



김성곤 목사

하늘에 있는 본향

(히 11:13~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 이르는 곳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13절).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실제로 오실 것이 포함된 모든 약속들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외인이고 나그네라고 인정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그네’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이기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타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신자일까요? 성도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이 세상’에서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 세상을 자신이 영원히 머무를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벨, 노아, 아브라함은 그들의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그들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최후에 이르게 될 본향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세상을 자신들의 나라인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르는 곳

자신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14절). “만약 저희가(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사람들) 나만 바 본향을 생각하였던들 어찌할 기회가 있었으리나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15-16절). 아멘! 이들은 본향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상상과 의견들은 각기 달랐으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는 더 좋은 하늘을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동경했습

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을 열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천국 본향을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침몰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이르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움츠러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몰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9).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일순간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너희에게 이르시리라”(히 10:37). 우리는 믿음에 따라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히 11: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과 증거를 제공하여, 마치 그것들이 단지 희망에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보이는 대상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깨닫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구합니다. “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 11:2).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짐 줄을 우리가 아니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뒤로한 자들이 이르는 곳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낯선 자들이요 나그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증거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히 약속된 구원의 나라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해서 그러한 곳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향을 향해 얼마나 달려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아 주신다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길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이

웃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가족, 자녀문제, 그리고 사업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취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의 문화적인 환경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더 큰 집, 더 탁월한 교육, 더 큰 기회, 수준 높은 삶의 양식, 더 나은 곳, 그리고 더 많은 사업과 재산을 추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소망과 꿈도 이 땅에 묶여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최고의 삶의 자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둔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흥분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의 삶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중요시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슬로몬의 부귀 영화에 초점을 둔 세속적인 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구름같이 하단 증인들이 있는 곳

사도 바울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삶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도입니까? 아니면 위선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하단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귀를 것과 열매에 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견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라 하니라. 그 후면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르는 곳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본은 천국 본향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인간은 ‘자아’를 부인하기 전까지 언제나 이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이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며, 여러분의 집은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며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 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곳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사십 년의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이 이 땅에 있었기에 멸망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오늘은 추연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추연교회가 이 세상의 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어디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고향이 천국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쫓으십시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비록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영혼의 눈 열어주소서
하늘 본향,
주의 큰 사랑 새겨진 십자가
덕히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주여,
우리네 마음이 낮아져
죄인됨 고백하게 하시고
그 피로 씻어
영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소서!
그러하여
주신 새 생애가 지나도록
이 세상에서
낯선 자요 나그네 되어
하늘에 있는 본향 노래하며
순례의 길 걷는 사람이게 하소서!

부요한 전도, 가난한 전도

오 정혜 (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4박5일간의 정보통신학교(춘천 소년원) 수련회는 나의 일생에 가장 보람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도라 하면 자신있어 하던 교만한 나에게 이번 수련회는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에 얼마나 부요한 것이었나 되돌아 보게 하였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나의 수고를 알아주길 원했던 모습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그들이 나를 영적인 부모로 공경해 주길 바랬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참으로 대가를 바라는 부요한 전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보통신학교 수련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조건없이 주어진 해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얼마나 가난한 전도인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눅 6:24).

"오, 하나님! 죄가 얼마나 참고무같이 절기고 무서운지 짐승의 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을 수 없었군요."

학생들을 붙잡고 목놓아 울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죄의 뿌리가 결코 이동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서운 문신과 칼자욱의 상처, 어지거지의 죄의 흔적을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으로 보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들의 모습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어 이들이 오히려 사랑스러웠다.

영적인 전쟁터라 설 사이 없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마지막 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무리 추악하고 험한 마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태풍 속의 촛불 같았다.

하지만 인간적인 열려로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우리가 가고 나면 이들이 죄와 싸워야 할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곳에서 어떡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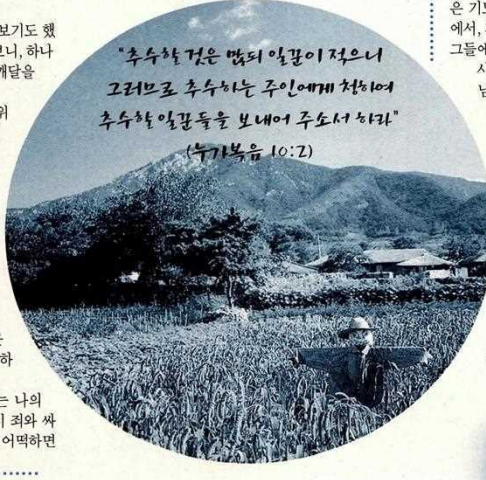
좋은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돌아갈 집도, 가족도 없고, 이곳을 나가면 심중팔구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이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갈 이 학생들... 오, 주님! 낙심하는 나에게 참람하게 주님의 용성이 들려온다.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 9:29). 일꾼이 없어 밭을 동동 구르며 애타하지는 전도사님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님이 이 땅위에 오신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길 소망하는 충현의 형제·자매에게 복음의 발인 춘천소년원을 소개하고 싶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눅 10:2)



유년부 전도전략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

장 홍희 (유년부 교사)

초등학교에서 가장 저학년으로 구성된 유년부는 학생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단점과 또한 부모님들의 넘치는 자녀사랑(과잉보호) 때문에 전도하지가 더욱 힘들다. 더군다나 불신앙 가정의 어린이를 전도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아주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올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황금어장(우리는 학교를 이렇게 부른다)에 고기가 많다고 무조건 학교를 단지던 실수하듯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는 선부분 접근이 오히려 경제성만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낯을 익히기까지는 부단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에서는 부장님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선생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학동·논현 초등학교로 출근한다. 몇 해를 하다보니 학부형과 선생님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저들은 충현교회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다'라며 인정해 준다.

먼저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전도지를 나눠주며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라고 묻는다. 아이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다. 영악한 두뇌로 어떠한 대담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영리를 종교교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이의 집전화번호를 알아내면 일단은 성공이다. 대체적으로 세 부류의 아이들이 있다. 첫째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이, 둘째 거짓으로 알려주는 아이, 셋째 자제히 알려주는 아이

우리 친구들은 참으로 바쁘다. 학교 공부 외에 과외, 학원, 수영, 피아노, 태권도 등등 정말 바쁘다. 바쁜 그들과 오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일단 전화번호를 알아낸 어린이와 주일마다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진다. 그렇게 적어오는 전화번호가 적게는 20여개 많게는 50여개지만 그 중에서 전에 적어준 것도 있고 까짜도 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소서

김 정은 (집사, 4교구)

우리는 주님께 아름다운 부락을 받은 일꾼들이다.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몫이다. 4교구에서는 양평에 있는 양동성심교회로 3년째 농촌전도를 갔다. 준비하는 동안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대원들은 아침 금식을 하며 집교회와 전도할 동네인 석곡리를 안고 기도했다.

도착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시길 간구했다.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안고 각자의 맡은 일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나갔다.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깊이 뿌리 박힌 불교와 천주교와 유교, 여러 우상, 제사, 아들·딸의 반대, 불신 아내의 반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장벽으로 다가와 잠시 동안 한계를 느끼게 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전했다. 두 분은 말씀을 전하고 한 분은 기도를 했다. 천동치는 발들에서, 부추 비닐하우스에서, 파리가 가득한 마루에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사역하는 동안 다위와 장마가 번갈아 왔지만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일 위에 뜻하신 일들을 기쁘게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했다. 찬송을 부르며 초청집회에 모인 어른들의 두 손울 꼭 잡고 춤추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서의 넘치는 사랑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심령들을 모이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들의 심령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썩어 나 성장하리라 믿는다.

부족한 우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 복음의 전문가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드린다.



먼 찾아뵙고 말씀 드려졌다면 집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읍루수 한 병을 들고 그 집을 심방한다. 부모님과 대면하여 나 자신을 소개하며 신뢰감을 확보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지금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고 전화한다. 전날 그토록 굳은 약속을 했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가지 않겠다는 아이도 반반이다. 그 때 다음주에는 꼭 가지고 다시 약속한다. 반복되는 전도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한다. "오! 할렐루야"

다음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겠지 믿으며 감사하고 기도드린다.

고3들의 축복을 받으며

정 성 민 (고등부교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서와 여행을 떠나는 여름! 어느 해 보다도 참 무더웠던 이 여름이 내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만난 '영혼'과, 매일매일 은혜를 느끼게 하셨던 감동과, 때때로 흘렀던 눈물 때문일 것이다. 누구는 고생한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지만, 나는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과정보다 그 모든 기간 동안 내게 주어진 은혜가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첫째 날, 어느 목사님이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원으로 찾아오셨다. 아주 잠시 동안의 방문이었지만 고등부를 향한 그분의 기대와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부흥회 시간에 고3들이 나와서 특송을 불렀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던지! 하나되어 부르는 찬양이 정말로 아름다웠다. 고3들의 찬양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후배들과 선생님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어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수련회 준비로 지친 나의 육신과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셨다. 서로를 바라보며 단손히 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았던 그 손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찬양시간 내내 뒤통에서, 양 옆에서 함께 손을 내리며 축복하시던 선생님들의 눈물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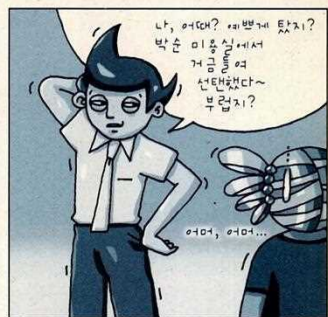
누구나 경험하는 고3이라는 시간이지만 '고3'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는 수련회였다. 이 영혼들을 담고 있는 고등부가 있는 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이 충현교회가 부흥하리라 확신한다.

주간충천만화 2001.09.02

No.02

{은혜 소녀, 주의 길을 따라가다}

글,그림 : 정민



물론 주님이 어디에 있으시면 선택해주시길~

하나님, 감사해요!

김 아 름 (고등부)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 찬양대를 바라보며

이 경 제 (집사, 고등부교사)

고등부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가게 된 여름 수련회인만큼 기대가 컸지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자꾸만 생기는 갖가지 유혹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가려던 나를 하나님께서 매번 붙잡아 주셨다. 힘들었지만 기뻐만족이나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은 부흥회와 찬양의 시간이었다. 평소에도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터놓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던지! 자꾸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또한 전체 찬양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기뻐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과 의무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아직도 이런 아인가? 어째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안되었는가?' 하며 부끄러웠다.

매주 교회에서 보는 얼굴이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이름을 알게된 친구들, 전배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뻐했다. 짧은 소감문만큼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을 일일이 다 담아서 나의 소감을 쓸 때는 없었지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쁨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고 다가가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2박3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였다.

날씨도 화창한 8월 15일, 기도원 정문에서부터 코소스는 하늘거리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고등부 찬양대 수련회가 2박3일간 시작되었습니다. 신배 도우미들과 교사를 포함하여 75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 중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서는 단연 '찬양의 밤'이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늦은 밤, 독창, 중창 및 악기들로 고요한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날리날리 울려 퍼지던 그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아름다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 드리기로 결심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고등부 예배와 5부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우리 학

생들의 믿음이 고이 자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원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로 -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5대 목표로 삼고 있는 천국일꾼양성의 주인공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 안에서 결심한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만의 타임캡슐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연말에 각자에게 개봉 되어질 시간을 기다리며... 올해 말에 그 내용을 다시 읽어 볼 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려 애썼다는 고백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등부 찬양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끝으로, 고등부 찬양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더욱더 많은 기도와 지도 및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구역일지

+ 양오설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막 3:5).

7교구 김신자 권사(여58세) 만성혈압증으로 혈압이 올라가 쓰러졌으나 일
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병든 손 내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우들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자
신들의 병든 손을 내밀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야외 예배 드리는 날

8교구 4지역 자영 1구역

구역장 공부할 때 교구 목사님께서 구역예배도 집에서만 드리지 말고 밖에 나가
서 드리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영 1구역 식구가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없을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자영동으로 이사해서 6년 동안 한번
도 가보지 않았던 구경 앞 공원이 생각났다. 그 생각을 하니가 기쁜 마음이 밀려왔다.
그 곳을 가보리라 생각을 했지만 뜻대로 시간이 나질 않았다. 어느날 교회에 다녀와
서 저녁을 먹고 견학을 갔다. 너무 장소가 맘에 들었다. 이만한 장소면 우리 구역 식
구가 전도로 하고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7월 27일 우리
차례가 되었다. 10시에 시작하는 예배시간을 앞당겨 아침 8시까지 구경 앞으로 모였
다. 박갑권 권사님, 김경의·예자야·손이저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명이 모
였다. 8시부터 두시간 동안 열심히 출근 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주님의 복음의
씨를 뿌렸다. 참으로 기뻐다. 예자야 집사님은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전도지를 나눠
주고 김경의 집사님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맘을 흘리며 전도하였다. 나는 정말 하나
님께 감사했다. 이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도를 마치고 우리는 대자연 속에서 구역 예배를 시작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들..."(찬363장) 오늘날의 본문 이사가 5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작은 분
도 큰 분도" 이 제물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본문 7절과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중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감시 가
리웠으나 영원 자비로 너를 공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읽고 배무면서 우리가 받
는 일시적인 고난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의 손길로 구해 주실 것
을 믿고 우리 구역 식구들은 땅에 엎은 바라보지 않고 위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할 것
을 다짐하며 주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참으로 내 아버지가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철순 구역장)

증 믿어드릴까요?

문 영숙 (집사, 1교구)

동네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욕탕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웬지
불가하게 보이고 장막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취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40대쯤으로 보이는 자매를 보면서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들은 미쳤나요? 제가 믿어드릴까요? 참 아름다운사람이다"라는 말로 가까워 지면서,
"제가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한번 오세요"라고 청했습니다. 가게 위치를 묻는
자매에게 충현교회 정문으로 오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헤어진 다음 한 동안 자매
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매를 다시 만나게 해 주시던 꼭 전도하
겠습니다. 한만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 며칠 후 길에서 그 자매
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반장제(2)로 저의 가게에 자매를 데리
고와 식사를 대접한 후에 김치 한통을 돌려 보내면서 다음 주일에 1시간만 나와 산
책을 하자고 했더니 자매는 시간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 등산복 차림의 자매가 제 앞에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반가운 나머지 눈물이 났는데 자매는 내색하지 않고, 손님의 부탁으로 충현교회 등록실
에 전해줄 때 가는데 함께 들렀다 거기서 교회로 자매와 함께 들어갔습니
다. 등록실 문을 여는 순간 당황해 하던 자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매가 세가주 양
육을 잘 마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자매가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믿음 안에서 생
활하며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이라 하니 참 기쁘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매님! 우리 서로 기도로 교통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그레고리 1세

자랑스런 종들의 종

그레고리는 자칭 '종들의 종'이었다. 그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수가
없었다. 그는 일생을 거룩한 궁지로 보냈다. 그러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부심을 가
진 이도 드물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과 야심으로 보일 경
우도 많았다. 그 종으로서의 열심은 지극하다 못해 지독할 정도였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자신도 이 자부심과 싸우는 것이 마치 아담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언제나 이 자부심 속에서 주인을 위해 힘을 다해 일하고 싸우는데 평생을 보냈
다.

그레고리는 540년경 로마의 한 자랑스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주 젊어서부
터 명성이 있었다. 그의 행정적 수완은 널리 알려져서 이미 나이 삼십삼세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로마시의 치안관으로 임명되었다. 요즘 말로하면 시장의 직책이
다. 그러나 그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높은 직책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었다. 그는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대로 의롭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황제
의 종이었으나 그보다 먼저, 온 천지의 황제인 신 하나님의 열심있는 종이었다.
'하나님의 수종'인 이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런 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레고리는 베네딕토의 엄격한 수도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고 또한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치안관의 임무가 끝나자 즉시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겨 수도에 전념하였다. 체소나 과일만 먹으며 밤의 대부분을 기도로 지새
었다. 그의 몸은 본래 건강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다 극심한 고행은 그의 건강을 극도
로 상하게 하였다. 그의 이러한 삶은 계속되었고 위장과 심장은 평생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 거기다가 그는 언제나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하는 체질이었다. 후에 그레고
리는 수도사로서 보낸 이삼 년간을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회상하고 있다. 그의 행복
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교황이 그를 일곱 달 중 하나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 시절의 임무로 그는 먼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오년여 세월을 보냈다.

로마에 돌아온 뒤에 그는 수도원에 다시 파송했다. 그의 나이 이미 사십이 넘었고
그의 바깥은 들어온 버렸다. 그는 언제나 주의 일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서도 철사와 피부 박진으로 무릅גע 고통을 겪는 한자였다. 그는 자주 누워서 하부를
보내곤 했다. 이런 속에서 그의 독실 해인 굳이 애써지지 시작한다. 그의 엄격한,
그러나 자랑스런 삶의 추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구구절절 천동하는 소리
로 포포하듯 나타난다.

그가 오십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레고리를 교황으로 선출했다. 그는 세계의 교황
이란 칭호받기를 강력히 거절하였으나 그의 활동과 그의 권위는 이미 그러한 지위를
확보하고도 남았다. 그레고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종들의 종의 삶을 자랑스럽게 살았
던 것이다.

(김기흥의 '천국의 기둥'에서)

다음주일 권승

230장 '저 보는 본향집'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주제로 하는 이 찬송가는 1852년에 피피비 케리가 작시하였고,
아름다운 테너 성가 가수들로 유명한 필립 윌킨스가 작곡하였다.

원문을 해석하면:

1절 - "아름답고 장엄한 생각이 내게 떠오르고 지푸 떠오른다. 이제는 전보다 더 본향에 가까워
갔다"

후렴 - 우리 인생은 마치 세월이란 물결을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천국이라는 항구를 향해 달려가
는 것과 같이 믿었기? 그래서 이제보다 오늘이, 오늘날도 내일이 더 본향에 가깝다. 그리하
여 작시자는 '내 본향'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전보다 오늘은 내 본향 더 가깝다."

2절 - 저 본향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즉 '내 아버지의 집'이 더 가까워진다. 거긴 믿음의 집이 있
다. 오늘날은 그 큰 환보다 더 가까워졌다. 수향바다다 더 가깝게 되었다."

3절 - "생명의 경계기 가만해. 무거운 짐을 내려 놓는 곳. 어떤 십자가를 벗을 날이 더 가까워
고, 면류관을 받을 날이 더 가깝다."

4절 - 인생의 여정이 끝나 요단강 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셔주시기를 간구한다. "내
발이 물가에 닿을 때 내 가까이 계시옵소서. 오늘날은 본향에 더 가깝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
다 훨씬 더 가까워졌었다."

이 찬송은 아름답고 은은하게 불러야 할 것이며, 후렴의 첫 소절과 둘째 소절은 기사가
반복되면서 음이 올라가는 부분이므로 둘째 소절을 더 크게 불러야 '더 가깝다'는 기사가
절조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위원회)

기
다
리
며

김성겸

(전도사, 중동2부 지도)

에스겔 33장 1-9절에는

만약 하나님의 피수꾼인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으나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에스겔에게는 죄가 없으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이유로 악인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피 값을 에스겔에게서 첫조심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나온다. 에스겔 33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악인의 생명이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피 값을 에스겔에게서라도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다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다. 교회에는 착한 아이들만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교회는 나쁜 아이들이 와서 철저히 변하는 곳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란 그 나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착하게 변할 수 있도록 눈물과 기도와 정성을 쏟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말 잘 들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다루기 쉬운 아이들이만 출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범주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일단 경계 대상으로 삼는다. 이 경계 명단이 중보 기도의 명단이라면 총요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명단은 감시대상 명단이다. 수차례 주의를 주고 경고도 하다가 말을 안 들을 경우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가 아예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생각만 하면 다행인데 우리는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서 가끔 그렇게 아이들을 쫓아내곤 한다. 아이들을 경계하며 수차례 경고를 준 것으로 그들의 교육적 의무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다했다고 착각

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도 가끔 그런 아이들에 대해 본의 아니게 경계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될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본다. "나는 과연 저 아이가 변화 할는 문제를 놓고 눈물 흘리며 금식 기도라도 해 보았는가?"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 아이들을 혼낼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잠깐 기지도 자녀에게 대를 아끼지 말고 하고 싶었는지? 그러나 정작 그 아이들이 예배시간을 이수한게 한나는 이유로 교회 밖으로 내몬다면 그들은 그나마 선생님께 말씀으로 훈계 받으며 또 있는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 물론 영혼을 기호조차도 놓치지 된다. 그렇다면 회개할 기회를 영영 놓칠 지도 모른다. 물론 영혼은 하나님께로 변화시킨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바로 우리 교사라는 사실이다. 아이들을 우리 교사들로 부터 분리시키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에 정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그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의 피 값을 내기 감을 수 있겠는가? 난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담담한다면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당당히 서 있는 바보일다 분명하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신 일관적인 태도가 있다. 바로 "기다림"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너 같은 놈은 안 봐도 된다" 하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때로 징계도 하고도 내성시킨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심지어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준 사형의 고백을 할 때까지 3년을 기다리셨다. 우리에게 맡겨진 문제들은 아흔아홉 마리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제각각 광야와 신전을 해매서도 "기다림"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 붙잡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어야 할 일이다.

경험의 신앙

이길 찬 (전도사, 중동3부 부지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 그리고 이천 년 기독교 역사상의 믿음의 거장들을 보라! 우리가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이들이 경험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이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며 사명을 받았다. 열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복음증거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다. 신앙은 지식만으로 되지 않는다. 경험이 있어야 한다. 경험이 없는 지식적 신앙은 메마르고 힘이 없다. 또한 자신의 신앙에 도전하는 철학자 사상과 과학 앞에서 쉽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은 무엇인가? 회심(구원) 경험과 임마누엘의 경험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입재 앞에서 나 자신의 죄가 벌격에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되는 구원의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행장은 어떠한가? 지식적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과 나의 만남,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의 신앙, 만남의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서 경험의 신앙이 형성되도록 기도하며 가르쳐야 한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참다운 구원을 경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자!

진리의 샘

에스겔(Ezekiel)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③

'그리고 에스겔을 읽으실 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행위, 비유, 환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 행위, 비유, 환상이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상징적 행위에 대한 내용을 읽으실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예시자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다가를 전쟁을 징조로 나타내려고 스스로를 밧줄로 묶고(3:24-27)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는가 하면(4:1-3),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거나(4:4-5)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기도 하며(4:6), 부족한 음식을 준비함으로써(4:9-17) 임박한 전쟁을 행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밧줄과 수염을 깎는 행위(5:1-4), 손뼉을 치기 발을 구르는 행위(6:11, 21-24), 여행하는 시늉(12:1-16), 성벽을 돌며 구원을 받는 행위(12:1-16), 음식을 먹으면서 행을 떠는 행위(12:17-20), 슬픔에 찬 사람처럼 신음하는 행동(21:6,12), 또는 길을 닦는 사람 노릇을 하거나 중동 지방의 지도를 그리는 행위(21:18-23), 물이 마른 긴 바가를 끊어내는 행위(24:1-14),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행위 등을 통해 사람의 주목을 끌기도 합니다(24:15-27, 37:15-17).

그리고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읽으실 때에는 비유에 대한 자세한 분석보다는 비유에 나타난 핵심이나 목적을 파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에스겔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핵심의 파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물론 깊이 있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더 자세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유로 나타내며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비유를 사용했는데, 열에 열은 포도주(15:1-8), 창지개(16:1-63), 두 독사(17:1-21), 거인의 지팡이(17:22-24), 그리고 어머니 사자와 새끼들(19:1-9), 두 창기(23:1-49)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다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에스겔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죄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에는 부활이라는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신자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으며, 신자의 영혼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고전 3:16). 그러므로 에스겔서를 읽으실수록 그 속에 나타난 내용들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며, 영적으로도 신자의 마음 안에서 실제로 성취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에 대한 열의를 받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동하 목사/한국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언뜻 스치다가는 한 순간의 잊지 못할 감동을 붙잡는다.

사 랑

얼마전 읽은 동기생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기생은 제가 대학이 여러 군데 있었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에게는 부모님도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깐요. 장로님이나 자기 아버지의 외한 내세 오며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충고까지 저에게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그후의 일로써 그 형제를 뵈었고 마음 속으로 그 형제를 경례했습니다. 정의와 신념은 저의 목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선 제게 그 형제를 진정으로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살아오', '안 할래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힘으로 형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년전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죽음이 은혜'라는 사실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저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엄청난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짧은 시간 동안 그 형제에게 제가 위로 받았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러자 놀랍게도 그 형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했답니다.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가 하면서 다른 영혼을 안타까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알면서도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그 무관심을 합리화하는 자신을 보며 그 자신이 '악'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알므로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나에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영희기자)

교 회 소 식

모임

1. 장로 월요세례기도회
일시: 3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의 화요일세례기도회
일시: 4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감장전도회 월례회
일시: 9일(다우주일) 1500
장소: 메추리마을
4. 이매전도회 월례회
일시: 6일(목) 11:00
장소: 교육관 212호
5. 안수집사의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12호
6. 관사 12회 월례회
일시: 12일(수) 수요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릴

넠리전도회

1. 바울 6회 월례회
일시: 9일(다우주일) 1500
장소: 교육관 405호
2. 베드로 12회 월례회
일시: 11일(화) 19:00
장소: 교육관 109호(사무부동)
3. 안나 4회 월례회
일시: 9일(다우주일) 1500
장소: 부사관 지하2층
4. 한나 17회 월례회
일시: 9일(다우주일) 1500
장소: 교육관 212호
5. 루디아 32회 월례회
일시: 7일(금) 11:00
장소: 영아부실
6. 루디아 11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12호

7. 루디아 16회 월례회
일시: 4일(화) 11:00
장소: 충훈가도인

별세

1. 김성태 성도
(감동촌 집사 부친, 이매이 권관의 시모,
1교구 목장구(목) / 8월 25일 별세, 8월
27일 장례)
2. 강정길 티고집사
(장경문 집사 장모, 오선희 집사의 모친,
2교구 청담구(목) / 8월 25일 별세, 29일
장례)

결혼

1. 노영관 공(노영환 장로, 남정애 권사)의

- 아들, 7교구와 이종숙 양(이만재 집사,
정하순 집사의 딸, 금안교회) / 4일(화)
12:30 갈릴릴
- 김준보 권(이영숙 집사의 아들, 노영환
교회)과 이혜숙 양(이종환 집사, 김성
권 집사의 딸, 2교구) / 8일(토) 13:00
갈릴릴
- 정영진 권(공준보 씨, 유원현 씨의 아
들, 19교구)와 이정은 양(이병근 씨, 이
호원 집사의 딸, 15교구) / 8일(토)
14:00 충훈 복자관

주소변경

1. 고영관 안수집사, 한경숙 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165번지 도현아
을 원대(☎202-304-2913, 2914-9153)

충헌증보의향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
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
로 사용하여 주소서.
2. 김창원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에 더
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
정과 경건의 노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
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4. 충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
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
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임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
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
님의 거룩한 전로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 | | | | |
|--------------|-------------|-------------|-------------|
| 김의철
신교목회장 | 조진근
기초목회 | 김은호
성원목회 | 노영환
일매서기 |
| 오진국
백미리 | 이병학
교구목회 | 윤인현
신교회 | 최태원
봉곡교회 |
| 임필성
영광교회 | 강모용
영광교회 | 오정현
12교구 | 이 훈
영광교회 |
| 남민우
12교구 | 서동석
영광교회 | 정운석
12교구 | 김영길
영광교회 |
| 문용주
봉서교회 | 조진태
영광교회 | 김중구
12교구 | 최무길
영광교회 |
| 김진태
영광교회 | 이정호
영광교회 | 차신복
영광교회 | 김재명
영광교회 |
| 박영식
봉서교회 | 김장남
영광교회 | 이종석
영광교회 | 윤성철
영광교회 |
| 최영식
영광교회 | 박민진
영광교회 | 김민진
영광교회 | 이병욱
영광교회 |
| 안종국
영광교회 | 최명환
영광교회 | 임두원
영광교회 | 이종성
영광교회 |
| 최기훈
영광교회 | 이갑재
영광교회 | 전종용
영광교회 | 전종현
영광교회 |
| 이정우
영광교회 | 최대용
영광교회 | 황영일
영광교회 | 은 철
영광교회 |
| 한승규
영광교회 | 김영주
영광교회 | 정종수
영광교회 | 김기남
영광교회 |
| 원종철
영광교회 | 이광우
영광교회 | 안동현
영광교회 | 황희만
영광교회 |
| 김기훈
영광교회 | 최윤덕
영광교회 | 이계인
영광교회 | 박덕영
영광교회 |
| 이태식
영광교회 | 정명두
영광교회 | 박용규
영광교회 | 권명영
영광교회 |
| 조종환
영광교회 | 배운식
영광교회 | 김영달
영광교회 | 이철호
영광교회 |
| 박학섭
영광교회 | | | |

■ 부목사

- | | | | | |
|-------------|-------------|-------------|-------------|-------------|
| 이종성
교구목회 | 이종대
교구목회 | 정현민
교구목회 | 김동환
교구목회 | 차병준
교구목회 |
| 김택재
교구목회 | 정재성
교구목회 | 이준경
교구목회 | 박기진
교구목회 | |
| 여정기
교구목회 | 류병호
교구목회 | 노경록
교구목회 | 이종철
교구목회 | 김영환
교구목회 |
| 여국근
교구목회 | 김교성
교구목회 | 송길환
교구목회 | 이수근
교구목회 | 이유진
교구목회 |
| 안창덕
교구목회 | 박종원
교구목회 | 나광영
교구목회 | 정진호
교구목회 | 김용덕
교구목회 |
| 이성호
교구목회 | 고광환
교구목회 | 신성식
교구목회 | | |

■ 찬양감독 김경구

■ 기도사 김경기

■ 전도사

■ 교정전도사 박영덕

■ 선교사

■ 합침선교회

- 정호의 권영일 최은아 권요셉
이소영 주은희
이명화 김시영 장현주
합침선교회
정호의 권영일 최은아 권요셉
이소영 주은희
이명화 김시영 장현주

등서노회와 제60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1) 목사 고사 청원장서(목사서와 목사 양자 동의서)
 - (2) 고사서 인위 및 고사 청원 (3) 전도사 고사 청원
 - (4) 목사 후보생 고사 청원(신학교 입학 및 신학교 입학 증명서)
 - (5) 신학 계속 중인 청원(신학교 입학 및 신학교 입학 증명서)
 - (6) 제출기간: 2001년 9월 8일부터까지
 - (7)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과(☎52-88200 #404)

14기 LMTC(평신도 선교훈련 과정)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9월8일~12월15일
매주 토요일 17:00~20:00
교육 목표: 5인원(분할 참가 가능)
개강장소: 베다니
2001년 겨울 단기선교 파송국: 아프리카, 몽골, CIS,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LMTC 수료자에게 한해서 단기선교 참가자격을 주입한다.

제3기 평신도 단기선교사 모집

- 지원자격: 정규 LMTC 수료자, 13기 과정 중에 있는 자
파송국가: 2001년 하반기~2002년 상반기
파송국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문의전화: 선교위원회(☎57-9544, gww@unitel.co.kr)

2001년도 하반기 교육훈련연구원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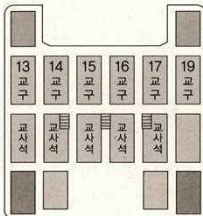
- 2001년도 하반기 교육훈련연구원 프로그램이 4월(화) 창양
대원 양성부를 시작으로 8월(토)LMTC, 9월(주) 교양인문
부 및 수학 회화영어 양성반, 12월(수) 주간성경공부, 19일
(수) 전도대원 훈련 등으로 각각 개강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성도들께서는 제1교구관 104호 교육훈련연구원에 문의
접수 하시기에 알선 결사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훈련 교구별 작성배치도

■ 1층 좌석 배치



■ 2층 좌석 배치



- 1, 2교구위원회에 속한 교사들은 반드시 2층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 예배는 교구, 교사, 찬양대, 등 자신이 속한 모든 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한 때를 위하여 헌도된 전원을 기 주십시오.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하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711	정현석	1	대학부	720	장성구	7	청년2부	729	정현석	14	대학부	738	정현석	14	대학부	747	정현석	14	대학부
712	김정호	2	바울	721	손은호	7	청년1부	730	정현석	15	대학부	739	정현석	15	대학부	748	정현석	15	대학부
713	이정호	1	청년1부	722	황기진	7	청년부	731	정현석	16	대학부	740	정현석	16	대학부	749	정현석	16	대학부
714	장진호	13	베드로	723	임정환	7	청년부	732	정현석	17	대학부	741	정현석	17	대학부	750	정현석	17	대학부
715	고용훈	19	청년부	724	김지환	2	베드로	733	정현석	18	대학부	742	정현석	18	대학부	751	정현석	18	대학부
716	송은호	1	청년부	725	김지환	2	루디아	734	정현석	19	대학부	743	정현석	19	대학부	752	정현석	19	대학부
717	정현석	1	청년부	726	유정민	8	청년2부	735	정현석	20	대학부	744	정현석	20	대학부	753	정현석	20	대학부
718	정현석	4	한나	727	이수진	19	청년부	736	정현석	21	대학부	745	정현석	21	대학부	754	정현석	21	대학부
719	조영현	6	바울	728	서정환	19	청년1부	737	정현석	22	대학부	746	정현석	22	대학부	755	정현석	22	대학부